

interview

interview



seattle pacific univ. 도서관 주변에서 :
 좌로부터 박영철(프로젝트 팀장 / 정기간행물 담당),
 강영신(분류목록 담당), 박수희(참고도서실 담당),
 김영환(분류목록 담당)

승실대학교도서관

사전 외국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1. 프로젝트 명칭 : 선진 외국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2. 실용 방안 목적 :

구분	이름	직명	직책	담당	담당
팀장	박영철	팀장	정기간행물 담당	정기간행물 담당	정기간행물 담당
팀원	강영신	팀원	분류목록 담당	분류목록 담당	분류목록 담당
팀원	박수희	팀원	참고도서실 담당	참고도서실 담당	참고도서실 담당
팀원	김영환	팀원	분류목록 담당	분류목록 담당	분류목록 담당

승실대학교도서관

직원 해외연수 프로젝트팀을 만나다.

직원 해외연수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oasis.soongsil.ac.kr/project.htm>>)

Q 우선 교내 직원 해외프로그램 프로젝트에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선진 외국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시스템 운영실태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에 공모를 하셨는데, 위의 주제로 공모에 응하게 되신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A 박영철 - 수년동안 저희 도서관 사서들은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늘 고민하곤 했었지요. 마침 올해부터 저희 대학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업에 적용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해외 프로젝트를 공모한다고 하기에 이번이 기회다라는 생각에 응모하게된 것입니다.

Q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셨던데요,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보았을 때 짧은 기간 내에 짜임새 있게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던데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전반적인 준비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A 강영신 - 우선 대상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할 일들을 탐방 사전준비, 탐방 중의 수행역할, 연구조사분야로 각각 나누어 역할분담을 하였지요. 또한 방문할 도시가 4개이지 않습니까? 방문 대학도 4개이고요. 그래서 각 도시와 대학을 4명이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각자 담당할 체류 도시의 관광지과 교통수단, 숙박지 등을 담당하여 인솔하였

고, 각자가 맡은 대학의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설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서로 자료를 나누어주고 발표하였습니다. 미리 스터디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리 공부를 하고 갔더니 언어가 좀 어려워도 이해하기가 쉽더군요. (웃음)

Q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셨군요. 아마 추후에 다른 도서관에서도 해외 방문이나 연수의 기회가 있을텐데, 이번 프로젝트 준비 시 어려웠던 점을 좀 알려주시지요.

A 박수희 -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방문대상교에 이메일을 보내어 방문을 요청하고난 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메일 내용을 보시며 아쉬웠지만, 상대방 학교의 답변이 늦어져서 몇번이고 다시보내곤 하였어요. 어떤 학교는 저희가 출발하기 10일 전에야 답변을 준 곳도 있었습니다. 참 아슬아슬 했었지요.(다들 웃음) 그리고 숙박과 교통편 등을 저희가 일일이 알아보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이 오히려 보람이 있고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와 병행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들 각자 맡은 도서관 업무가 있으므로 점심시간에 만나서 의논을 하거나 근무시간 이후에 남아서 사전조사 내용을 스터디 하곤했지요.

Q 각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조사항목은 어떤 기준을 참고로 해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A 박수희 -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타겟은 교수-사서 리에종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리에종(Liaison) 프로그램¹⁾에 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들은 저희 도서관에 계시는 다른 사서선생님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건의한 내용들을 조사항목에 담은 것입니다. 도서관 시설, 마케팅, 특수장서, 지역주민서비스등이 그것이지요.

Q 국내에서도 요즈음 도서관 마케팅이나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일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사항목 중 마케팅 관련 활동과 지역주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탐방하신 대학들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박영철 - 이번에 서구대학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도서관이 저절로 발전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서들이 참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명칭과 홈페이지주소가 기록된 이용안내문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으며 색상도 다양하게 눈에 띄도록 곳곳마다 게시해놓고 있었습니다. 사서들이 학생이나 교수들을 찾아가는 것도 참으로 적극적이었구요. 워싱턴 대학에서는 공모전을 통하여 도서관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해 학기논문을 작성한 학생을 뽑아 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신입교수를 만나기 위해 사서와 만나는 자리에서 100달러짜리 쿠폰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좌중 웃음)

1) 교수-사서 담당 프로그램. 사서와 교수가 서로 협력하여 해당 주제 분야의 정보원들을 개발하고 교과과정 중심의 도서관 이용교육과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Univ. of Washington
- 시애틀의 명소인 Suzzallo 도서관에서 -

지역주민 서비스의 경우, 생각보다는 덜 개방적이었어요. 물론 출입은 자유로웠고 관내이용도 가능했지만, 대출을 할 때는 한국에서처럼 회원 가입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내 데이터베이스 이용이나 사서들의 심도 깊은 참고서비스는 지역주민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어요. 또한 문학서나 교양서, 오락자료 등은 공공도서관에서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그런 경우 도서대출이나 참고서비스 등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Q 주제담당서비스는 도서관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은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탐방도서관들의 주제담당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험하신 사례 중에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김영환 - 방문한 대학들이 규모가 서로 달라서 운영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사서들의 인원수도 국내와 비교할 수 없고 사서자격증 취득 제도도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도서관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볼 수 있지요. 사실 국내의 경우 도서관의 인원부족으로 주제담당 사서 또는 주제전문사서 등을 배치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소규모 도서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리에종 담당 사서를 전담자로 배치하지 않고 현업과 병행하는 겸업 리에종 사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래 분류와 목록을 하고있었다면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상태에서 리에종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는 단순업무를 도와줄 사서보조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Q 탐방 도서관이 북미지역 3개교, 일본지역 1개교로 송실대의 자매대학을 중심으로 대상교를 채택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4개 대학을 선정하셨는지요.

A 강영신 - 서구의 대학들은 대부분 국내 대학들 보다 도서관의 규모가 크지요. 그래서 선진국의 도서관을 둘러본 후에 한국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대학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나누어 방문을 하였습니다. 워싱턴 대학은 600만권의 장서를 가진 대학이고, 빅토리아대학은 130만권, 시애틀 퍼시픽 대학은 20만권 남짓한 장서를 소장한 대학이지요. 그러나 각 대학의 규모별로 배울 것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소규모의 대학에서 배울점이 더 많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편


일본의 동경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한 이유는 동양권의 대학도서관은 어떤 실정인가를 비교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Q 외국대학도서관과 국내대학도서관을 비교해보았을 때 대학도서관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국내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대학도서관 서비스는 무엇이며 국내에 적용할 만한 서비스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김영환 - 저는 이번 도서관 투어 중에 서구의 대학도서관을 보면서 사서들이 참으로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주와 오레곤 주의 30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상호대차를 하는데 워싱턴 대학이 그중에서 제일 큼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그런데도 워싱턴대학의 사서는 자료가 많이 이용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 자료를 타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더라도 말이지요. 그런 열린 생각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시다. 한편, 일본의 동경대학교 도서관은 입구에서부터 폐쇄적이더군요. 한국의 실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D카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였지요. (웃음)

Q 이번 해외 대학도서관 탐방을 통해서 인상깊었던 점 또는 느낀 점, 탐방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A 박영철 - 저희는 이번 탐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저희 도서관 측면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국내에도 저희 도서관보다 뛰어난 곳이 많이 있지만 서구의 대학을 둘러보면서 시각과 운신의 폭을 넓혔다고나 할까요? 더구나 저희들의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도서관을 둘러보고 사진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수-사서 리에종프로그램의 적용방안 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목표로 삼고 간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뒤에 저희 도서관 사서 전체가 모여서 두차례에 걸쳐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저희 대학에서는 다음학기부터, 빠르면 이번 학기중부터 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그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켜보시면 '송실대가 동실 떠오르는구나'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 : 심효정,
shjcap@hifel.net]